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	40 비타민(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재)	40 생생정보통 스페셜(재)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10 KBC 생활뉴스 30 박시백의 세계유산순례
⑫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4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00 SBS 12 뉴스 45 닥터365 55 세상발견 유레카
1	40 뉴스 특급	00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25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재)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30 청포도(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5 리얼스토리 눈(재)	00 건강 클리닉(재)
3		00 KBS 뉴스 10 청춘의 도전, 전국기능경기대회(재)	00 키오카(재) 25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경제뉴스 10 보글 쿡 원정대 40 헬로키즈 아하!동물탐험대	00 SBS 뉴스 10 SBS 이슈 인 사이드
4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00 TV유치원 콩다콩 30 마법 천자문	10 내꺼야 폴록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00 최강 탑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 생활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꼬마기차 추추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모큐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신개념퀴즈 버라이어티 도서관은 살아있다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특별생방송 흔들리는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제1편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 백〉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11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40 KBS 특선 신아리랑별곡	15 해피 투게더	15 헬로 이방인	15 자기야
12	20 카톡쇼 S ①:30 채널A 일요기획(재)	①:00 생활의 발견 50 싱글파파는 열애중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걸어서 세계속으로 ①:25 KBS파라노마(재)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어리 ①:10 우리가락 우리문화	35 나이트 라인 ①:05 열린예술무대 뒤란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07:00 시계마을 티키톡(재)
07:15 곤(재)
07:30 책과 팡(재)
07:45 로보카 폴리(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How-만들어 볼까요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9:35 따개비루
09:40 부모 〈생활백과〉
10:1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대수능 특집 EBS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부모광장(재)
13:40 내 이름은 펑키
13:50 뛰뛰 빵빵 올리
14:00 시계마을 티키톡
14:15 치로와 친구들
14:30 미술탐험대
14:45 미앤마이로봇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어린 왕자
15:30 정글북
15:45 모피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
16:20 버블버블 마린
16:35 원더 볼즈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곤
19:30 대수능 특집 EBS 뉴스
19:50 패자부활傳 하프타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인도양의 숨겨진 보물섬 레위니옹〉
21:30 한국기행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24:05 역사채널 e(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Ⅰ〉
01:50 〃 〈국어Ⅱ〉
01:40 〃 〈영어독해의 기본Ⅱ〉
02:30 〃 〈수학Ⅱ〉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04:10 〃 〈과학〉
05:00 〃 〈한국사(하)〉(재)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기본〉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Ⅰ〉
07:30 2014 포스 〈문학Ⅱ〉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Ⅱ〉(재)
09:10 〃 〈수학Ⅱ〉(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기본〉(재)
11:4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2:1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0 〃 〈영어-듣기〉
14:0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Ⅱ〉(재)
14:50 〃 〈수학Ⅱ〉
15:4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6:30 〃 〈과학〉
17:20 〃 〈한국사(하)〉
18:10 포스 〈미적분과 통계기본〉
19:0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Ⅰ〉
19:50 포스 〈문학Ⅱ〉
20:5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5-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매경 TEST 시험대비 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영어 1〉
10:30 〃 〈도덕 2〉
11:10 〃 〈국어③④〉
11:50 〃 〈영어 2〉
12:30 중학 중간·기말시험대비 〈사회 1-2〉
13:10 〃 〈과학 1-2〉
13:50 〃 〈과학 2-2〉
14:30 〃 〈역사 1-2〉
15:20 초등 기말학업 성취도 평가대비 〈과학 3-2〉
15:50 〃 〈과학 4-2〉
16:20 〃 〈과학 5-2〉
16:50 〃 〈과학 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2〉(재)
18:00 TV 중학 〈역사(하)〉
18:40 〃 〈사회 3〉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9:40 사이틴 백만이의 지구뉴스
20:00 EBS 인문학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등업 신공 〈과학 3-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음 윤9월 21일 戊子)

子 36년생 정비만 잘 한다면 이익이 따르리라. 48년생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60년생 뒤도 돌아보면서 가자. 72년생 각각 떨어져 있도다. 84년생 관용이야말로 궁극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1, 71

丑 37년생 행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 49년생 예상되는 판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61년생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자. 73년생 과욕한 만큼 잃을 수 있는 운로이다. 85년생 대조해 보자. 행운의 숫자 : 30, 20

寅 38년생 겉으로만 풍성할 뿐이지 실속은 빈약하다. 50년생 복잡한 상황이다 보면 충분히 오판을 낳을 수도 있다. 62년생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기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원칙에 따라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9, 81

卯 39년생 지난날의 노고에 대한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겠다. 51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니라. 63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75년생 한강에 돌 던지는 격이니라. 행운의 숫자 : 85, 40

辰 40년생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52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하다. 64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백 번 낫겠다. 76년생 희망의 빛이 점점 가까이 비춰오는 형국이로다. 행운의 숫자 : 14, 48

巳 41년생 한 동안 긴박한 정황이 계속 될 것이다. 53년생 획득 못지않게 관리도 잘 해야 하느니라. 65년생 미진하다면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77년생 바짝 뒤쫓으면 가까스로 따라 잡을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9, 59

午 42년생 밝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54년생 진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66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78년생 가리지 말고 수용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3, 07

未 43년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55년생 적절한 상황이 전개 되면서 안정 궤도를 달린다. 67년생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79년생 원하는 대로 되어서 기뻐하리라. 행운의 숫자 : 60, 68

申 44년생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자. 56년생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68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리라. 80년생 빠르게 지나가고 있으니 붙잡아 두는 것이 득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9, 61

酉 45년생 격식이 필요한 때이므로 외형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57년생 주변을 잘 정리한다면 약진의 발판이 되리라. 69년생 즐기면서 임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81년생 자신의 주관이 중하다. 행운의 숫자 : 80, 28

戌 46년생 시기를 늦추고 자신을 낮추면 해결 된다. 58년생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70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실수 하리라. 82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연 다른 상태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9, 70

亥 47년생 핵심 사항의 확보를 위해 이전투구 하는 형상이로다. 59년생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71년생 기준이 단순하다면 오류가 따른다. 83년생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5,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은교' 박해일 / '나의 독재자' 설경구 / '두근두근 내인생' 조성목

40대가 70대로? … "누가 더 늙어 보이나"

'은교' '두근두근 내인생' '나의 독재자' 등 노인 분장 열풍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늙어보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배우가 실제보다 몇십 년 나이 들어보이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영화 '은교' '두근두근 내인생' '나의 독재자'가 잇달아 선보였고, 지난 5일 시작한 MBC TV 수목극 '미스터 백'이 그 바통을 이었다. 연말 개봉하는 영화 '국제시장'도 있다.

2012년 4월 개봉한 '은교'에서 당시 35세의 박해일은 70세 노인으로 바뀌었다. 그는 실제보다 꼭 두배 많은 나이의 역을 맡아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 연기를 펼쳤다.

이어 지난 9월 개봉한 '두근두근 내인생'에서는 13세의 아역배우 조성목이 80세의 신체나이를 가진 16세 소년을 연기했다. '은교'의 박해일이 노인 역이었다면 조성목은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으로, 노인 역은 아니지만 겉모습이 여든 노인처럼 쭈글쭈글 한순간에 늙어버린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나의 독재자'에서는 46세의 설경구가 40대부터 70대까지를 연기해냈다. 극중에서 그가 맡은 캐릭터는 20여년이라는 세월의 변화를 몸으로 보여준다. 설경구는 이를 위해 분장과 함께 촬영 도중 살을 찌우는 등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해가는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5일 첫선을 보인 판타지 드라마 '미스터 백' 1~2회에서는 40세의 신하균이 70세 노인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2회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이 노인이 난데없이 젊어지면서 신하균은 40세 제 나이의 외모를 되찾는다. 하지만 외모만 젊어졌을 뿐, 속은 여전히 70세 노인인 캐릭터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노인 분장술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술력이 진화하고 있다. '은교'의 박해일은 촬영 때마다 8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분장을 해야했지만, 2년 후 '미스터백'의 신하균을 노인으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으로 줄었다.

'은교' 박해일과 '나의 독재자' 설경구의 노인 분장은 모두 한국영화계 최고 분장감독으로 꼽히는 송종희 감독이 맡았다. 송 감독은 박해일 때 터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이번 설경구 때는 분장 시간을 3시간 단축해 5시간에 해결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아역배우 조성목이 31회차 촬영동안 매회 4~5시간에 걸쳐 노역 분장을 견뎠고, 그 분장을 지우는 데도 매회 1시간 반씩 인내심을 갖고 버텨야 했다.

이 영화의 특수분장에는 할리우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세계적인 특수 분장 전문가 그렉 케놈이 참여했다. 그렉 케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실리콘 소재로 최대한 얇은 마스크를 제작해, 브래드 피트를 80대로 만든 것과 동일한 재료로 같은 공정을 거쳐 조성목을 분장시켰다.

이런 작업들이 있었기에 '미스터 백'의 신하균은 운좋게도 4시간의 분장시간만 견디면 됐다. 물론 분장 회차는 11번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회당 분장시간은 '은교'의 박해일에 비해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미스터 백'이 영화에 비해 촬영 시간에 쫓기고 제작비도 쪼들리는 드라마인 점을 감안할 때 신하균의 분장에 들인 정성은 상당하다. 제작진은 이 특수분장에 3천만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신하균의 분장은 특수분장회사 '메이지'의 신주희 팀장이 담당했다. 신 팀장은 "종전에는 노인분장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수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라마에서는 1~2회에만 신하균이 노인 분장을 하지만 한번 한 분장은 땀 등으로 인해 길어야 7~8시간 밖에 버티지 못해 11번 정도 분장을 해야했다"며 "드라마 치고는 꽤 많이 분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로 만나요"

김정은·김수로 안방극장 동반 복귀
'내 마음 반짝반짝' … 내년 1월 방영

배우 김정은(39)과 김수로(44)가 내년 1월 시작하는 SBS TV 새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의 주인공을 맡아 나란히 3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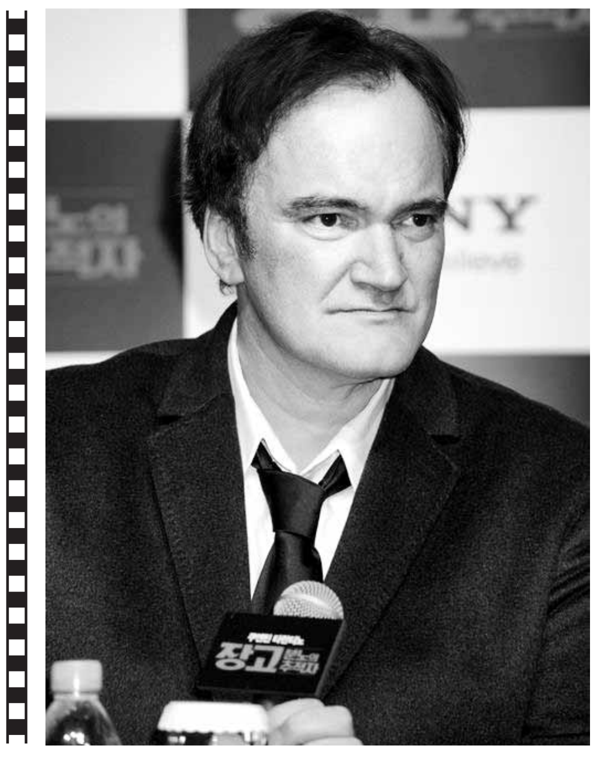
'미녀의 탄생' 후속으로 방송되는 '내 마음 반짝반짝'은 치킨으로 얽히고설킨 두 가족의 성공과 성장 스토리를 그린다.

각각 '울랄라 부부'와 '신사의 품격' 이후 복귀하는 김정은과 김수로는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김정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두 동생을 위해 살아가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이자 '진심원조 치킨'의 첫째 딸 이순진 역을 맡았다. 김수로는 그 경쟁가게인 '운탁 치킨'의 주인이다.

이들 외에 이태임, 남보라, 이필모, 오창석 등이 출연한다. '솔약국집 아들들' 의 조정선 작가가 드라마 대본을 쓴다.

〈김정은〉 〈김수로〉



"10편 채우고 은퇴"

타란티노 감독 '헤이트풀 에이트' 연출

미국 컬트영화를 대표하는 쿠엔틴 타란티노(51) 감독이 "10번째 연출작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란티노 감독은 자신의 8번째 연출작 '헤이트풀 에이트'를 들고 참석한 아메리칸 필름 마켓(AFM) 행사에서 "관객들이 떠나라고 부탁할 때까지 현역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두 편을 더 만들어 10편을 채울 것"이라며 "기념비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수지의 개들'(1992년)로 데뷔한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픽션'(1994)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으며 '재키브라운'(1997) '킬빌'(2003) '씬시티'(2005) '바스터즈 : 거친 녀석들'(2009), '장고 : 분노의 추적자'(2012) 등을 연출했다.

/연합뉴스